

유족 “애도기간 끝나면 어쩌나... 49재까지 분향소 유지를”

대표단 간절한 호소... 사고 수습 길어져 머물 공간 필요 별도의 추모 공간 마련 요청·악의적 비방 처벌 촉구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사고수습 장기화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49재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대표 박한신)은 2일 오후 3시 30분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수습 작업이 길어지고 있어 합동분향소를 희생자 49재까지 운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이후 전국 각지를 비롯해 공항에 설치된 분향소들이 철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시도 20곳과 시·군·구 80곳 등 모두 100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유족들은 “추운 겨울 분향소를 찾아주시는 국민들의 위로와 관심으로 유족들이 버티고 있다. 국가 애도기간인 4일이 지난 후 분향소가 철거되면 희생자들이 언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이 머물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분향소 운영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자체에서 승낙한다면 분향소를 축소하더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바람이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49재는 다음달 15일이다.

유족들은 합동분향소 외에도 정부에 영락공원과 같은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

다.

이어 “장례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 기간의 연장을 부탁드린다. DNA 검사가 진행 중인데 희생자 모두가 좀 더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근거없는 비방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대표단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악의적인 폄해를 제발 멈추고 남은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즉시 중단해 달라”며 “관계 당국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박한신 대표도 “유가족을 사칭하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퍼져 군요를 치르고 있다. 박씨의 자녀가 직접 희생자인 작은 아버지의 실명을 밝히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 것을 호소했다.

장혁 유가족 장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3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진행 방법과 진척도 등을 유족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유족 요청사항을 정리하려 한다”며 “현재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가족들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과 장례를 치르는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장례 절차 등이 끝나면 유가족 구성원인 1970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의해 유가족 모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위로를...” 참사 닷새째인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추모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내 고장에 이토록 슬픈 일이...” 분향소 6만여명 조문

5·18 민주광장 등 애도 행렬

무안공항 계단엔 추모 글 빼곡

부산 거주민 고향 광주 찾아 추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에도 광주·전남지역 분향소에는 희생자를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분향소 설치 이래 2일(오후 4시 현재)까지 5만7895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분향소 1만 2025명, 무안공항 9774명, 각 시·군 1만 7927명 등이다. 광주 5·18민주광장에는 1만 6376명(30일 2463명, 31일 5605명, 1일 6107명, 2일 2201명)이 찾아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2일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분향소와 광주5·18민주광장에 굳은 표정으로 국화를 손에 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화를 위해 국화를 가득 담아놓은 통은 금세 비워져 공항 관계자들은 국화를 채워놓는 손길로 분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앞에서 “아이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주저앉아 서글픈 울음을 뱉어냈다. 현화대 앞에 서 조문을 마치고도 여운이 남는 듯 자리에 서서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한참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공항 2층으로 가는 계단에는 추모 글귀가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했다.

포스트잇에는 “엄마랑 15년 정도밖에 같이 못 지내서 너무 아쉽지만 엄마가 바라던대로 언니랑 나랑 더 열심히 살게”, “언니 아직도 내 옆에 와서 웃어줄 것 같은데 나 앞으로 어떻게 언니를 보지 않고 살아가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우리 생각하면 가끔 내려오고 항상 곁에 있어줘” 등의 글귀가 적혔다.

같은 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의 분향소에도 수천명의 시민들이 줄지어 현화를 하고 방명록에 애도의 글을 남겼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침뚫은 표정으로 국화를 제단에 올려놓으며 무겁게 묵념을 했다. 일부 조문객은 현화 이후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지 인근에서 하염없이 분향소를 바라보고 서 있었으며, 분향소 인근에 둘러 서서 기도를 올리는 교인들도 있었다.

5·18민주광장에는 시민뿐 아니라 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전에는 공군 제1전투비

행단 소속 조종사훈련생 34명이 분향소를 찾아 현화했으며, 31사단에서도 분향 희망자를 지원받아 단체 분향을 했다.

조문객 유경순(여·72)씨는 직장 동료 김모(여·72)씨와 함께 일하던 중 짬을 내 분향소를 찾았다. 유씨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니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분향소를 찾아왔다”며 “지금도 아니면 언제 추모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근무 중에 부랴부랴 와서 현화했다.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부산에 거주하는 최모(53)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광주까지 찾아와 현화했다. 자기 고향인 광주 사람들의 참사 소식을 도저히 부산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순간 목숨을 잃다니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더구나 희생자 대다수가 고향 동네 이웃들이라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부산에도 분향소가 차려지긴 했지만, 먼 곳보다는 본가가 있는 광주시 동구에서 참배하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한숨을 쉬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참사 희생자·유가족 모욕 범죄 ‘무관용’

검찰 사고대책본부 구성...경찰, 모욕 글 4건 게시자 압수영장 신청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천명했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는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경찰도 이날까지 현재 4건의 모욕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까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글 4건의 게시물 아이디 아이피를 확보해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게시자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 모욕 게시물 등 125건을 삭제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고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지역 8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을 꾸려 희생자·유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 게시물 등에 대응하고 있다.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희생자·유가족 대상 허위·왜곡에 대해서도 관련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유가족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리3(서항동)